



한 남자 향한 두 여인의 사랑 노래

13일 개봉 ... 1940년대 감성 표현하려 4개월간 노래 연습

우리에게 생소한 1930년대는 대중가요 전성기였다. 일제로부터 음반과 대중가요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신민요, 만요(漫謠), 트로트 등 대중가요가 생겨나 1930년대에 이르러 '레코드의 황금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영화 '해어화'는 태평양 전쟁의 발발로 대중가요가 일제의 탄압을 받던 1943년을 배경으로 세 남녀의 우정과 사랑, 질투와 갈등을 다루고 있다.

천우희는 영화에서 한 곡의 노래로 당대 최고의 작곡가 윤우(유연석)의 마음을 빼앗는 기생 연희 역을 맡았다. 윤우는 연희의 '돌도 없는 동무'인 소울(한효주)의 연인이기도 했다.

천우희는 영화에 나오는 1940년대 노래 대부분을 소화한다. 게다가 '마음을 울리는 목소리'를 지닌 인물로 그려진다. 가수가 아닌 배우가 이를 표현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5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는 "부담이 엄청났다. 연습할 때 너무 (노래가) 안돼 울기도 했다"며 노래 연기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천우희는 이를 위해 촬영 전 4개월간 발생부터 시작해 노래연습을 했다. 1940년대 목소리의 느낌을 가지려고 트로트도 수없이 불렀다.

하지만 생각만큼 노래에 감정을 실기 쉽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에 대해 "기교는 넘치지 않지만 꽤 나를 잘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답했다. 실제 영화를 보면 천우희의 노래 실력이 만만치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희가 소울의 남자를 빼앗으면서도 돌도 없는

동무에 미안한 감정을 나타내는 장면이 없어 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우희는 이에 대해 "저로서도 꽤 아쉬운 부분"이라며 "조금이라도 같듯이나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연기하는 저로서도 그렇고 관객분도 (연희에) 연민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우희는 차기작으로 '곡성'에 출연한다. 여성 연쇄살인범을 다룬 '추격자', 연변 살인청부업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황해'를 연출해 주목받은 나홍진 감독의 신작이다. 이른바 '센' 영화다.

그는 "같은 센 연기라도 감각이나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조금해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극중 두 여자 사이에서 갈등하는 작곡가 윤우로 나오는 유연석은 "두 인물의 사랑을 받아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면서도 단순하게 "변심해버린 남자로 보지 않을까 걱정했다"고 밝혔다.

애초 소울(한효주)과 연인 사이였던 윤우는 우연히 소울의 친한 친구인 연희(천우희)가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고는 연희에게 마음이 끌리게 된다.

그는 "소울에 대한 마음을 접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일순간 내가 찾던 뮤즈를 발견하고 본능적으로 끌려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우가 너무 쉽게 연희 쪽으로 마음이 돌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시나리오에는 연희와 관계를 맺어가는 장면이 더 있었다"며 "그것이 편집되다 보니 다소 급한 느낌이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윤우는 두 여자의 사랑을 받지만 두 여자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유연석은 "윤우가 예뻐서 말하지 못하는 성격"이라며 "술직함이 윤우라는 캐릭터에 연민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자평했다.

영화에서 세 남녀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역할을 한다. 윤우는 사랑을 배신하고, 연희는 '돌도 없는 동무'의 남자를 빼앗고, 소울은 그런 동무를 끈경에 빠트린다.

유연석은 "어느 순간 보니까 모든 캐릭터가 악역이 돼 있다"며 "어느 편에서 인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착한 사람일 수도, 나쁜 사람일 수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연석은 작곡가인 만큼 극중에서 윤심덕의 '사의 찬미'와 우리나라의 대표 민요인 '아리랑'을 직접 연주한다. 특히 술집에서 일본 군인들이 군가를 부르며 소란을 피우자 '아리랑'을 연주하는 강단을 보여주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유연석은 "내가 여기서 노래를 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윤우인 것 같다"며 "연주하면서 저도 모르게 울컥했다"고 당시 심정을 전했다.

그는 결국 이 영화에서 "일제 강점기를 산 인물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그 시대를 살았는지 잘 그려보고 싶었다"며 "아리랑을 치는 장면이 그런 부분이 많이 담긴 것 같다"고 말했다.

'해어화'는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는 의미로, 당나라 현종이 당대 최고 미녀인 양귀비를 칭찬한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생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됐다.

13일 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120분. /연합뉴스



공민지, 투애니원 떠난다

YG 측 "3인조로 유지 ... 올 여름 신곡 출시"

걸그룹 투애니원(2NE1)의 멤버 공민지가 팀을 탈퇴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5일 오후 공식 블로그를 통해 "투애니원의 막내 공민지가 더 이상 투애니원과 함께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YG는 2016년 5월 5일 투애니원의 계약 종료 시점을 앞두고 지난 1월 멤버들과 각각 개별 면담을 통해 재계약 의사와 투애니원의 재도약에 대한 의지를 전달했다"면서 "어쉽게도 공민지는 뜻을 함께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YG는 "연습생 시절부터 11년을 같이한 동료로 떠나보내려는 건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라며 "2년 전 갑작스러운 팀 활동 중단으로 힘든 시기를 겪게 된 공민지

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기에 아쉬운 마음보다는 미안한 마음이 더 크다"고 했다.

투애니원은 지난 2014년 2월 낸 정규 앨범 '크러시'(CRUSH) 이후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였다.

다만 YG는 향간에 떠도는 투애니원 '해체설'을 일축했다.

YG는 "양현석 대표가 세 명의 멤버들을 만나 '무슨 일이 있어도 투애니원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싶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합쳐 잘 극복해나가자'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나머지 세 명의 재계약과 더불어 올여름을 목표로 투애니원의 신곡을 준비 중이며 공민지를 대신할 추가 멤버 영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배우 오상진·김소영 아나운서 "사귀지 1년 됐어요"

MBC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오상진(36)이 MBC 김소영(29) 아나운서와 1년째 교제 중인 사실이 5일 알려졌다.

오상진 소속사 프레인TPC는 이날 "오상진과 김소영 아나운서가 1년째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두 사람이 진지하게 만나고 있지만, (결혼 등) 앞으로의 계획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오상진은 교제 사실을 밝히면

혹시라도 상대방이 불편을 겪을까 봐 조심해왔다"면서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랐을 팬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오상진은 2006년 MBC에 입사해 간판 아나운서로 활약했으나, 2013년 퇴사 후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다.

오상진 대학 후배이기도 한 김 아나운서는 2012년 MBC에 입사했으며 현재 '뉴스투데이'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토크쇼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소리)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끝내 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00 신문이야기 들춰주기+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복구급 후보자 방송토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트35	00 제20대 총선 후보자 법정토론회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50 KBC 생활뉴스
11 40 씨인 스페셜(재)		0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재)	00 주말특별기획 (결혼계약)(재)	00 닥터 365 05 세계문화탐방 지구촌특집 35 정은표의 세계문화유산 순례
12	00 KBS 뉴스 12	50 문화빅뱅 더 콘서트(재)	00 MBC 정오뉴스 20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재)	00 SBS 12뉴스 30 고향이 보인다
1 뉴스특급	00 중계방송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00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김중인 더불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00 방송기자 초청토론회 (김중인 더불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2 30 직언직설	00 제20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연설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크(재)	00 제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 토론	00 열린 TV시청자세상
3		05 후토스 읽어버린 숲 30 자동차부품성 위기	55 텔레몬스터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다크공감	00 TV 유치원 30 이윤정 PD의 자연을 담은 한끼	25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00 고향이 보인다 30 귀가기 탐구생활
5 40 김승권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노그레피	00 비타민(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메슬론 도넛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사는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재) 15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7 2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7 30 필통	5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	05 선거연설방송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5 TV 블로그 품지락 2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8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25 일일연속극 (우리 집 끝단지)	30 2TV 생생정보 플러스 55 동네스타 전국방송 내보내기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 발굴단
9 50 한번 더 해피엔딩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토론'10' 55 숄터	00 공사창립특별기획 (태양의 후예)	00 수목미니시리즈 (good-bye, 미스터 블랙)	00 드라마 스페셜 (돌아와요 아저씨)
11 00 나는 몸신이다	00 KBS 뉴스라인 40 제20대 총선 후보자 법정토론회	10 추적 60분	10 리디오스타	10 보컬전쟁신의 목소리
12 50 통일준비 생활백서, 잘 살아보세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크	30 MBC 뉴스 24 5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건강한 아침 05:4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화산기행, 푸른 불꽃 카와이젠)	10:30 최고의 요리비결 (콩나물찜과 쪽파무침) 11:00 세계테마기행(재) 11:4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2:40 지식채널 e 12:45 EBS 초대석 13:40 사이먼3 왔다 사춘기 13:50 이맘 스페이스 정글 13:50 우당탕탕 아이쿠 14:00 책과 땅 14:30 미앤마이로봇 15:00 모피와 친구들
06:10 세계의 눈 (잠지동물 대백과 - 딱지맞기) 0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7:30 주사위 오징어 큐비주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땃땃땃 유치원 1~3 08:45 방귀대장 뽀롱이 09:00 출동! 슈퍼핑크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9:40 라이브 토크 부모	15:10 세계사 시간여행 15:20 꼬마철학자 후고 15:35 호기심나라 오기도 15:50 바오밥집의 파오파오 16:00 출동! 슈퍼핑크(재) 16:30 방귀대장 뽀롱이(재) 16:45 땃땃땃 유치원 1~3(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9:30 EBS 뉴스 19:5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20:40 다크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열도의 낭만설경, 훗카이도) 21:30 한국기행 (동도에 살고있다 - 동대문에서 새벽을 열다) 21:50 EBS 다크 프라임 (곤충 밀리미터의 세계 - 2부 일 하나의 우주) 22:45 극한직업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23:35 장수의 비밀 24:05 지식채널 e 24:10 한국영화특선 (우리 형)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6일(음 2월 29일 戊午)
子	48년생 소신껏 임했을 때 탄력이 붙게 되리라. 60년생 해묵은 일이 가닥이 잡힌다. 72년생 산 넘어 산이니 단단히 각오하고 일해야 할 것이다. 84년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결정적인 시기를 포착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5, 23	42년생 융통성을 발휘하여 과격적으로 처리해야 할 때가 되었다. 54년생 철저히 대비해야만 이를 수이니라. 66년생 마음에 드는 쪽으로 택하면 무방하다. 78년생 자연스럽게 전환되기 시작하는 모양새이다. 행운의 숫자 : 63, 01
丑	49년생 아쉬움이 강하게 남겠지만 빨리 잊는 것이 좋다. 61년생 순간의 방심은 커다란 손해를 부른다. 73년생 상당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전이 보인다. 85년생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다. 행운의 숫자 : 39, 89	43년생 전무이거나 전무의 상황이 예상된다. 55년생 그 자체로 의미에 만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7년생 기거가 수렴하는 것이 빠른 낫다. 79년생 추진하는 방향과 현상이 정비례하지않은 않다는 것을 알라. 행운의 숫자 : 70, 19
寅	50년생 시련은 알찬 결실을 가져다주는 디딤돌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62년생 중간 밑이 어둡다는 속담을 명심하라. 74년생 사려 깊은 성찰 속에 해안이 열리게 될 것이다. 86년생 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행운의 숫자 : 31, 40	44년생 당면한 문제 해결이 급하므로 부차적인 일은 보류하는 것이 마땅하다. 56년생 자신을 내세우면 충돌하게 되어 있다. 68년생 힘들더라도 의연히 대처하라. 80년생 정리정돈을 잘 해야 손해가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3, 82
卯	51년생 복잡해집 가능성이 농후하다. 63년생 안배를 잘한다면 부가적 이익도 따를 것이니라. 75년생 의심의 여지가 없으니 노파심은 거두어도 된다. 87년생 현하의 국세를 감안하지 않으면 불균형을 초래하기 쉽다. 행운의 숫자 : 42, 55	45년생 곁집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57년생 기본적인 것들을 소홀히 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69년생 다양한 관점으로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81년생 과욕만 하지 않는다면 고통은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 72, 85
辰	40년생 변영의 순풍과 함께하고 있다. 52년생 재 넉넉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라. 64년생 원칙과 순서에 따라야 무리가 없을 것이다. 76년생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이가 있다. 88년생 판국을 좌우할 만한 흔들림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79, 46	46년생 유사한 형태로 반복될 뿐이다. 58년생 경험보다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는 것이 정확하다. 70년생 조용히 덮어 두는 것이 좋다. 82년생 상호 간에 배려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유지해 나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96, 74
巳	41년생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리라. 53년생 가벼운 징후가 현상으로 비화 되지 않도록 하자. 65년생 화의 씨앗은 아예 만들지 말라. 77년생 관련사건이면 문제점이 생긴다. 89년생 순조로워 보이지만 결과는 미흡하다. 행운의 숫자 : 56, 69	47년생 활용만 잘한다면 고부기거지를 창출할 수이다. 59년생 크게 영향을 받을 만한 일이 벌어지겠다. 71년생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면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다. 83년생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는 성국이다. 행운의 숫자 : 86, 93